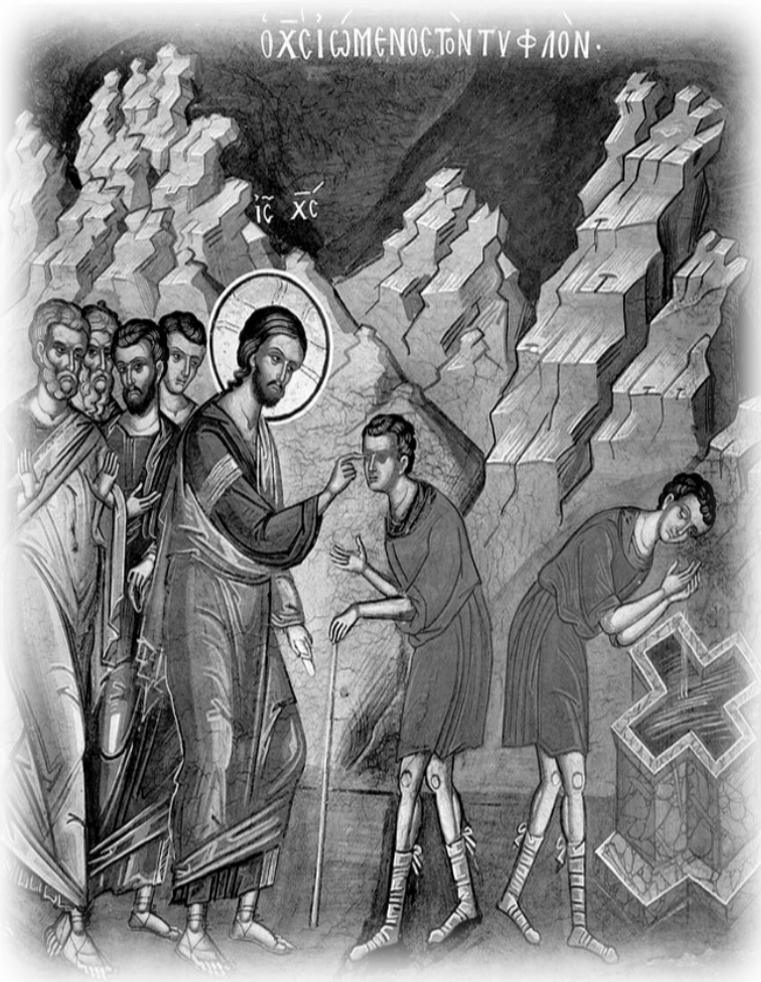




정교회 주보



부활 후 제 6주일 / 소경 주일

성 일라리온 수사

제 5조, 조과복음 8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에서

• 제 1,2,3 응송 / 사도경 21~23

•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 부활 입당송 / 부활절 예식서 38

• 제 5조 부활 찬양송 / 82, A 215

• 성당 찬양송

• 부활 시기송 / 부활절 예식서 39

• 사도경 : 사도행전 16:16~34 / 255, 봉독서 73

• 복음경 : 요한 9:1~38 / 102, B 24

• 성모송 / 부활절 예식서 26

• 영성체송 / 부활절 예식서 42

• ‘우리가 참 빛을’ 대신 ‘부활 찬양송’ / 부활절 예식서 16



교회의 기혼 성인들



성 니칸드로스 순교자

우리 교회에서 6월 8일 축일로 기념하고 있는 성 니칸드로스는 통치자 막시무스 시대 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감옥에 갇혔다 풀려나기를 반복하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부정하라는 회유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굳건한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온갖 박해와 고문을 당하였으며 이러한 고문을 당할 때 성 니칸드로스의 아내는 용감하게 “나의 주인이시여, 악마들에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작은 형벌로 너무나 아름다운 것들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라고 말하면서

힘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이 말에 통치자는 성인의 아내에게 “너의 남편이 죽기를 바라느냐?”라고 물었고, 아내는 “이 죽음으로 불멸과 사라지지 않는 생명을 살길 원한다.”라고 답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막시무스는 아내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성 니칸드로스가 참수를 당하기 직전에 이 용감하고 훌륭한 협력자인 아내는 말하였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정의의 월계관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순교자의 아내로 불리어질 것이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2~3세기)

하느님은 세상의 빛이시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 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고는 침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신 후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었다.(요한 9:1-7)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이전까지는 그 누구도 감히 체험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기적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유는 태생적으로 소경이 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하느님의 일이 저 소경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려는 것 이라고 하셨다.

즉 빛은 하느님의 현존이시며 하느님은 빛이심을 사람에게 알게 하시려는 것이다.

주님이 빛과 함께 계시다는 내용은 신약과 구약 곳곳에서 볼 수 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 약속된 땅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주님께서 밤낮으로 행진 할 수 있도록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시어 길을 인도하셨다.(출애굽기13:21)

예언자 모세를 불러 계시하실 때에도 불꽃이 솟아오르나 타지 않는 떨기나무속에서 나타나셔서 대화를 나누셨다.(출애굽기 3:3-4) 또한 주님께서 제자인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

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마태오17:1-2)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어둠 속을 걷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요한8:12)”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이들은 주님의 생명의 빛을 보기 위해 온 생명을 받친다.

태어날 때부터 눈이 멀었던 사람이 주님께서 베푸신 기적을 통해 시력을 찾고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을 보게 되고 바른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듯이 어둠 속에 살던 우리는 세례를 받고 영성체를 받음으로서 빛의 자녀가 되었다. 따라서 교인들은 성체성혈을 받은 후에 ‘우리가 참 빛을 보았고 하늘의 성령을 받았으니...’ 라는 성가를 부른다. 주님이 세상의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작은 빛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빛의 역할은 크지 않아도 된다. 우리 주변에서 내가 쉽게 할 수 작은 봉사 하나, 작은 사랑 하나가 한번 두 번 모이면 큰 햇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큰 햇불이 아니어도 좋다. 다만 작은 봉사 하나라도 주님이 보시기에 잘 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일을 했다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한 번이라도 더 볼 수 있는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보물을 요청하라

† 안토니 코냐리스 신부, 1926-2020)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마을에서 영국의 어떤 집에 도착한 특별한 소포에 대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받아야 할 사람이 운송료를 지불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그 상자는 우체국에서 14년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되면서, 때때로 발판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매에 나온 그 상자에 대해 호기심을 가진 어떤 사람이 아주 낮은 가격을 불렀고 그에게 낙찰이 되었습니다. 상자를 열었을 때, 그는 아주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수천 파운드에 해당되는 영국지폐가 들어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로써 본래 소포를 받을 사람은 얼마 안 되는 택배비 내는 것을 거부한 까닭에 작은 행운을 얻을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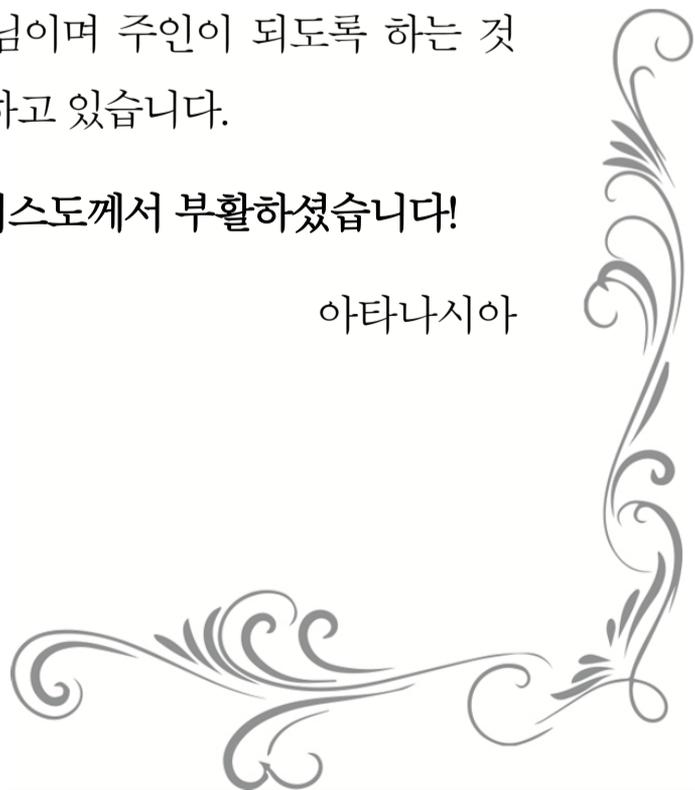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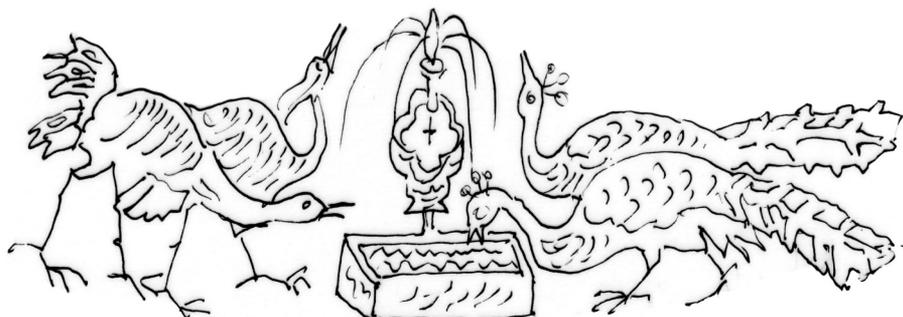
사람들은 흔히 꼭 위와 같은 상황을 맞이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단지 알아보지 못함으로써 삶의 풍부한 축복을 빼앗겨버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온갖 복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

다. 곧, 하느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것, 하느님의 모든 돌보심과 보호, 사랑, 그리고 하느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등 세례를 통해 우리는 이 모든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은 이 보물을 요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발판으로 쓰고 있을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적은 택배비 내는 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을 위해서 시간 내는 것을 거절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것, 그분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 하느님의 용서하심을 청하는 것, 성찬예배에서 깨끗한 영혼으로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하느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것, 하느님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진정한 주님이며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것 등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타나시아



주보 소식

대교구

■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일정

6월 6일: 인천 성 바울로 성당

6월 13일: 전주 성모안식 성당

6월 20일: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

6월 27일: 인천 성 바울로 성당

■ 세계총대주교님 서신

지난달에 바르톨로메오스 세계총대주교님께서 서신을 보내오셨습니다. 서신의 내용은 우리 한국정교회의 정교회 출판사에서 『정교회 교부전집 니짜의 성 그레고리오스 '아가 강해'』를 출간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과 앞으로 해나갈 이 거룩한 사업에 대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으로 모두가 함께 합심해서 잘 해나가길 기원하셨습니다.

서울성 니콜라스대성당

■ 세례를 축하합니다

지난 5월 30일 주일에 로만 카프착 신부의 집전으로 성찬 예배와 함께 세례성사가 이루어졌습니다. Alimbekova Angelina, Kim Angelina, Pavel Koniakhin 어린이들이 세례 성사를 통해 정교인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도움으로 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올바른 정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길 기원합니다.

■ 부활절 종례일 밤예배

부활절 종례일을 맞이하여 6월 8일 화요일 저녁에 밤예배가 있을 것입니다. 이 날 예배는 부활절 밤 예배와 같은 예배로 특히 부활절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참여해주시고, 미리 일정을 조정하여 밤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하여 오후 10시 경에 마칠 예정입니다.

전주성모안식성당

■ 성당 재건축 현황

하느님의 도움과 성모님의 중보로 성모안식 성당의 재건축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건축 초기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많은 고민 끝에 부속건물의 3층 내부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추후에 하기로 하였었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의 은총과 많은 국내외 신자 분들의 도움으로 3층 내부와 엘리베이터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지난 5월 28일(금)에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느님께 영광 돌리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성당이 완전히 완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간예식



6월 9일(수) 부활절 종례일

6월 10일(목) 승천 축일

6월 11일(금) 바르톨로메오스, 바르나바 사도 축일

오전 9시 -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